

## “The Boarding House”의 한 독법

김 명 렬

Joyce의 *Ulysses*는 모더니즘적 작품이라는 데에 이론이 없으나, 그의 초기 작품인 *Dubliners*는 모더니즘과 여러 모로 대조적인 자연주의에 속하는 작품으로 보려는 견해가 일찍부터 있어 왔다. 그것은 이 단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랜드의 하층민을 주로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좌절과 정신적 마비를 다루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같은 내용을 작가의 개입이 배제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이같은 판단에 대해서 특히 논란의 초점이 되어 온 것은 후자, 즉 기교의 문제였다. 사실 Joyce의 후기 작품들이 보여주는 그 현란하고 정치한 기교를 감안하면, 아무리 초기작이라고 해도 그가 이 작품에서 담담하게 사실적 수법을 구사했다는 데에는 누구나 일단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Dubliners*의 기법을 자연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평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증거로서 Joyce 자신이 쓴 다음과 같은 편지의 한 구절을 자주 인용한다.

My intention was to write a chapter of the moral history of my country and I chose Dublin for the scene because that city seemed to me the centre of paralysis. I have tried to present it to the indifferent public under four of its aspects: childhood, adolescence, maturity and public life. The stories are arranged in this order. I have written it for the most part in a style of scrupulous meanness and with the conviction that he is a very bold man who dares to alter in the presentment, still more to deform, whatever he has seen and heard.<sup>1)</sup>

우선 자기 조국의 “moral history”를 쓰겠다는 말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Dublin시 사람들의 도덕적 현실이라는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며, 그것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겠다는 뜻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을 “a style of scrupulous meanness”로 썼다든지, 실제로 보고 들은 바를 변경하거나 왜곡함이 없이 썼다는 말 등도 생의 단면을 과학적 엄정성을 갖고 정확히 기술하려는 자연주의의 특성과 부합함이 틀림 없다.

그러나 Joyce가 위의 글을 쓰게 된 내력을 알아 보면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 위의 글은 “The Two Gallants”와 “Counterparts”의 몇 구절이 지속해서 실지를 못하겠다는 인쇄소측의 거부를 출판인 Grant Richards를 통해 듣고 Joyce가 Richards에게 보낸 답장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보아야 하는 그 소명의식과 자부심이 강한 젊은 작가에게 이같은 문외한의 간섭은 견디기 어렵게 여겨졌을 것이다. 더구나 그보다 더 저속한 내용을 매일 신문에 인쇄해 내는 자들이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느닷없이 이처럼 도학자연한 태도를 취했을 때에, 그가 느꼈을 반발과 분노는 가

1) Richard Ellmann, ed.,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New York: Viking, 1957) 83.

히 짐작할 만 하다. 그것은 격앙된 상태를 감안할 때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그의 주장이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moral history”를 쓰겠다는 말은 도덕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온당할 것이다. C. H. Peake가 지적하고 있듯이, “a style of scrupulous meanness”라는 말도 일반 대중이 쓰는 상스러운 말투라는 정도의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 그것은 “문체를 대부분의 경우에 썼다”하지만 이 말도 상당한 부분을 접고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sup>2)</sup> 실제로 그런 말투가 쓰인 것은 주로 대화부분이며 그것도 “The Dead” 같은 작품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위의 인용문은 *Dubliners*의 기법을 자연주의적이라고 규정하기 위한 근거로서 별로 신빙할만한 것이 못된다.

더구나 그동안 많은 학자와 비평가들의 노력으로 *Dubliners*의 여러 단편들이 일견 평범해 보이는 사실적 차원의 이야기 밑에 대단히 교묘하게 위어진 중층의 의미구조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것은 물론 객관적 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Joyce 특유의 간접적인 제시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래서 아이로니와 상징을 찾아 내는 데에 명수인 신비평가들에게는 이 단편들이 주요한 보고 노릇을 해왔다. 그리하여 그 단편들이 자연주의적인 작품이라는 판정은 이미 무효화한지가 오래이다.

그러나 그중에서 “The Boarding House”는 사정이 좀 다르다. 그것은 이 단편이 다른 것들에 비해 내용이 더 평이하고 그것을 기술하는 방법도 좀 더 직접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생각되어 그런지 우선 이 단편에 관한 연구나 해설이 대단히 빈약한 것이 실정이다. 그것은 사정은 이 단편에서 Joyce 특유의 정교한 기교가 별로 들어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단편에 관한 아직도 자연주의에 관한 시비가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The Boarding House”를 자세히 읽음으로써 그문제의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 단편은 한 젊은이가 하숙집 모녀의 교묘한 술수에 빠진 다음 강압에 못이겨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그 강압은 크게 보아 Mrs Mooney가 Bob Doran과 Polly Mooney의 관계를 내놓고 문제 삼았을 때에 Doran이 지게되는 사회적인 압력과 Jack Mooney가 은연중에 그에게 가하는 폭력의 위협이다. 인간이 폭력이나 사회적인 조건 등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운명지워지고 파괴되는 상황이 자연주의 소설의 전형적인 상황임을 상기하면 그런면에서 이 단편은 분명히 자연주의적이다. 특히 Doran이 Mrs Mooney의 호출을 받고 도망가고 싶은 심경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장면에서 “어떤 힘이 그를 한 발짝 한 발짝씩 아래층으로 밀어 내렸다(a force pushed him downstairs step by step)”고 표현한 것은 이같은 결정론적인 상황을 나타내 주는 좋은 예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서술하는 기법은 자연주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 단편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의 첫말이 각각 Mrs Mooney, Mr Doran, Polly로 되어있는 사실이 말해 주듯이 그것들은 이 세 인물에 대한 기술로 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야기의 핵심은 Doran이 Polly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행위는 제시되지 않고 암시만 될 뿐이고, 일이 그렇게 된 과정도 인물묘사에 곁들려 간략하게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는 행위가 중시되어 그 발전 과정에

2) C.H. Peake,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4-6.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같은 행위의 원인이 되는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데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이 점은 작중인물의 의지나 성격을 중요시하지 않는 자연주의 소설의 관행과 상치하는 것이다. 또 이 점은 Joyce로 하여금 간접적인 제시 방법을 사용하게 만든 원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설적인 성격묘사로는 깊이 있는 성격을 그려 내기 어려우며, 그래서 그가 이 단편에서 보이려고 하는 바인 품위를 가장한 도덕적 타락이나 정신적인 마비를 효과적으로 담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령 Mr Mooney나 Jack Mooney처럼 성격이 직설적으로 묘사된 인물들과 나머지 인물들을 비교해 보면 자명해진다. Mr Mooney와 Jack Mooney는 악당들임에 틀림 없으나, 이들은 Mrs Mooney나 Polly Mooney처럼 교활하게 사악한 짓을 하거나 Bob Doran 처럼 이중적인 정신구조로 고민할 수 있는 인물들은 못 된다. 그러므로 이 세 인물들의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Mrs Mooney는 음모의 주도자인 만큼 가장 충실하게 묘사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정뱅이 남편으로부터 자식들을 구출하고 일생을 망칠 뻔한 딸을 구해주는 훌륭한 어머니 같으나 내용을 찬찬히 드러다 보면 그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가진 여자이다. 당당한 체격을 가진 이 하숙집 여주인은 *Ulysses*의 "Circe"에 나오는 비슷한 채구의 Bella Cohen과 흡사하다. Bella가 Bloom의 남성을 억압하는 가학적인 여성이듯이 Mrs Mooney는 자기 남편을 내쫓고 그에게서 딸을 만나는 자유마저 빼앗은 거센 여자이다. 또 Bella가 Bloom을 마소처럼 타고 학대하듯이 Mrs Mooney는 Doran의 의지를 꺾어 그에게 영원한 굴레를 씌운다. 이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Bella의 세계는 밤의 세계, 환상의 세계이고 Bloom에 대한 그녀의 학대는 성적인 학대인 반면에, Mrs Mooney의 세계는 낮의 현실세계이고 남성에 대한 그녀의 학대는 경제적인 수탈이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푸듯간을 빼앗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거지신세를 만들었고 Doran에게 Polly를 떠맡기는 것도 그의 견실한 경제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차이는 Bella는 터놓은 사창가의 포주로서 창녀들에게 매춘을 시키거나, Mrs Mooney는 겉으로는 점잖은 하숙집 주인이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친딸에게 간음을 시켰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Mrs Mooney는 이중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밖으로는 도덕적인 사람인 척하는 위선자인 것이다. 바로 이점이 그녀에게 아이로니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 그녀는 "일을 혼자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단호한 여자(a woman who was quite able to keep things to herself: a determined woman)"이라고 하지만 그녀가 그런 능력을 실제로 발휘한 것은 남편을 내쫓고 경제력을 장악할 때나 직장이 튼튼한 청년을 꼬여서 딸을 처분할 때 처럼 이기적인 동기가 있을 때뿐이고, 가령 망나니로 정평이 나 있는 아들 Jack나 바람기 있는 딸 Polly를 다스리는 데에는 그런 훌륭한 능력을 전혀 동원하지 않는다. 이처럼 알고 보면 영악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여자가기 때문에 그녀가 가장하는 도덕적 허식은 그만큼 더 공허하고 추악해지는 것이다. 그 가장 두드러진 예가 Doran을 협박할 딸을 준비하며 그녀가 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이다.

She was sure she would win. To begin with, she had all the weight of social opinion on her side: she was an outraged mother. She had allowed him to live beneath her roof, assuming that he was a man of honour, and he had simply abused her hospitality. He was thirty-four or thirty-five years of age, so that youth could not be his excuse, since he was a man who had

seen something of the world. He had simply taken advantage of Polly's youth and inexperience: that was evident. (64)<sup>3)</sup>

이 부분이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도 단순히 그녀가 술수를 쓰고 있어서가 아니라 “an outraged mother”나 “her hospitality”나 하며 거것을 점잖음(respectability)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부분은 또한 앞서 든 그녀의 독립적인 역량에 대한 아이로니도 포함하고 있다. 남편을 축출하는 데에는 사제(priest)를 통해 교회의 힘을 얻었듯이 이제 Doran을 강압하는 데에는 사회의 여론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일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때에는 재빨리 사회의 제도(예컨대 교회)나 인습(예컨대 사회적 규범이나 체면)의 힘을 빌어서 상대방을 억압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녀에 대한 아이로니는 다시 한번 कु절한다. 왜냐하면 그녀야말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이 힘들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점잖음에 대한 그녀의 위선은 이미 언급한 바이지만 교회에 대한 그녀의 성실성도 그에 못지 않게 의심스러운 것이다. Doran을 위협하여 Polly의 일을 매듭 짓고 나서 말보러가에 있는 성당에 가서 제일 짧은 미사(short twelve)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아무 저항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은 일요일에 이 일을 벌이는 것 자체가 커다란 아이로니이다. 그녀는 화창한 아침에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교회로 가는 선남선녀들을 창 밖으로 내려다 보며 태연히 그전날 밤에 있었던 Polly와의 면담을 회상하는 것이다. 그 부도덕한 음모의 회상이 이 종교적인 순간에 그녀에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하늘 나라에 갈 길을 닦아야 할 날에 한 젊은이를 영원한 생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아이로니는 그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녀의 신앙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Mrs Mooney는 또한 “도덕적인 문제를 푸줏간 칼로 고기 자르듯 처리하는 (dealt with moral problems as a cleaver deals with meat)” 여자이다. 그것은 언제나 복잡할 수 밖에 없는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편리한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적절한 방법일 수는 없다. 더구나 남편과 헤어질 때나 이번에 Polly의 결혼문제 같이 이기적인 동기가 깔려 있는 경우에는 그런 방법은 상대방에 대해 대단히 불공평할 수 있으며, 그 같이 불합리한 방법은 결국은 자기편에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 오기 십상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번 경우에도 “cleaver”라는 말의 함의가 그런 조짐을 나타내 주고 있다. “cleaver”는 동물을 살육할 때에나 사체를 자르고 가를 때에 쓰는 칼로서 살상과 파괴의 도구이므로 화합과 평화를 이상으로 하는 결혼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다. 더구나 그것은 Mr Mooney가 Mrs Mooney를 해치려고 했을 때에 사용한 흉기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결혼이 파탄에 이른 점을 상기한다면 위의 표현은 단순히 섬찍한 느낌을 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실현될 Doran과 Polly의 결혼생활에 대한 불길한 암시마저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Mrs Mooney는 이제나 사업수완 같은 면에는 능력이 있는 여자일지 모르나,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자기의 가정이건 딸의 가정이건) 적격한 여자가 아니다. 그녀가 남

3) “The Boarding House”로부터 인용한 글에 밝힌 면수는 James Joyce,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Viking, 1969)에 의거한 것임.

편과 같라 섬으로써 가정을 깨고 나서 하숙집을 차렸다는 사실은 이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하숙집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잠을 자고 어느 정도 생활도 같이 하는 곳이면 서도 가정은 아니다. 그곳은 돈을 주고 가정과 유사한 것을 사는 곳이다. 이것은 가정 대신에 돈을 택한 Mrs Mooney의 금전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녀에게는 유사가 정만이 있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Joyce가 Jack와 Polly를 그녀의 가족으로 따로 소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숙하는 젊은이들을 기술하는 문단 안에 끼워서 소개한 것은 의도적일 수 있다. 장기유숙자들은 모두 “시내에서 근무하는 사무원들(clerks from the city)”인데 Jack도 “Fleet가에 있는 한 청부업소의 사무원(clerk to a commission agent in Fleet Street)”이라는 점도 하숙인의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짙게 한다. 또 “그가 항용 자정이 넘어야 집에 온다(usually he came home in the small hours)”는 것도 가정의 일원으로서 보다는 하숙인으로서의 행태에 가까운 것이다. Mrs Mooney가 Polly를 집에 있게 한 표면적인 이유는 Mr Mooney가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집안일을 돌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집안 일을 하는 사람은 하녀 Mary이고 Polly가 하는 일은 공일날 저녁 파티에서 노래하는 것이나 젊은 하숙인들과 바람 피우는 것이다. 이처럼 그녀의 실질적 역할이 젊은 하숙인들에게 성적인 자극을 가하여 그들을 잡아두는 것이고 보면 그녀도 Mrs Mooney에게는 가족으로서 보다는 하숙집의 종업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Doran을 굴복시킬 만반의 준비를 끝낸 뒤에 Mrs Mooney는 “딸을 치지 못하는 자기가 아는 몇몇 어머니들을 생각했다(she thought of some mothers she knew who could not get their daughters off their hands)”는 귀절도 곱씹어 불만하다. 그것은 물론 자기는 딸을 간단히 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가족에 대한 그녀의 마음의 일단을 볼 수 있다. 딸은 어차피 언젠가는 출가를 시켜야 할 식구임에 틀림 없으나, 그녀에게는 단지 치어 버릴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이 짙다. 사실 그녀가 Polly의 결혼을 위해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치어 버렸다”는 표현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젊은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집에 파년한 딸을 둔 어머니라면 딸의 행실을 단속해야함이 물론이고, 아니면 적어도 사귀어서 좋을 상대를 미리 가려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Mrs Mooney는 Polly가 집에 유숙하는 젊은이들의 아무하고나 놀아나게 내버려 두었다가, 그중의 한명과 관계가 깊어지는 김새를 채고도 그것이 더 진전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다가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기회가 왔다는 듯이 나서서 짝지워 버리고 만다. 사실 그녀는 Polly가 결혼할 상대가 누구인가에는 관심이 없다. 일이 심각해질 때까지 Polly의 상대가 단지 “젊은이들 중의 한명(one of the young men)”이나 “그 젊은이(the young man)”로 지칭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반영해 준다. 그녀가 딸의 결혼 상대자에 관해서 고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의 경제적인 사정뿐이고, 그가 정말로 Polly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래서 앞으로 그녀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물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그녀의 관심 밖이라는 사실도 그렇다.

이상의 여러가지를 종합해 보면 Mrs Mooney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능한 남편으로부터 독립한 결단력 있고 가정적인 여자라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이 아닐 수 없다. 그같은 훌륭한 외형적인 인상 밑에는, 경제적인 이점을 가족의 유대에 우선시키고 그 결과 가족을 자주 가정에서 밀어내 버리는 이기적이고 반가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Polly에 대한 묘사가 Mrs Mooney에 대한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은 작품 속에서 그녀의 역

할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도 단순한 인물은 아니다. 그녀는 일견 철없는 처녀로 보이지만, 그녀의 모습이 “그릇된 성모(perverted madonna)” 같다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그녀는 순진한 처녀가 아니다. 그녀는 남자를 유혹할 수 있으며 말 없는 가운데 Mrs Mooney의 속뜻을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만큼 눈치 빠른 여자이다. 그러므로 Doran을 낚는 음모에 Mrs Mooney가 주모자라면 Polly도 분명히 공모자이다. 그녀의 단순치 않은 심리상태는 Mrs Mooney와 만나서 Doran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잘 나타나 있다.

Both had been somewhat awkward, of course. She [Mrs Mooney] had been made awkward by her not wishing to receive the news in too cavalier a fashion or to seem to have connived and Polly had been made awkward not merely because allusions of that kind always made her awkward but also because she did not wish it to be thought that in her wise innocence she had divined the intention behind her mother's tolerance. (64)

Polly로 시작되는 절의 복잡하고 뒤틀린 문장구조는 바로 왜곡된 Polly의 양심을 반영해 준다. 특히 “wise innocence”라는 표현은 그녀의 사람됨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다. 이 말은 모순어법의 표현이다. “innocent”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순진하다”는 뜻이므로 그 앞에 “눈치 빠르다”는 뜻의 “wise”라는 말은 올 수가 없다. 이것은 그녀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부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실해지는 것이다. Polly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것처럼 상반되는 양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양면이 독립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의 표현에서도 “wise”와 “innocence”가 함께 붙어 있으면 “innocence”의 뜻이 변질 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그녀의 본질은 현명하면서 순진한 것이 아니라 순진한 척하면서 교활한 것이다. 실은 앞서 언급한 “perverted madonna”라는 표현도 같은 모순어법이다. 그러므로 그 말도 madonna의 순결성은 외형일 뿐이고 실체는 그릇된 여성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Polly의 행동도 겉보기와는 다른 동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Doran은 그녀가 자기를 위해 특별히 마음을 쓰는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들의 결혼이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같은 행동도 그녀가 그를 유혹하기 위해 한 짓일 수 있다. 실제로 그녀는 자신의 이중성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있다. Mrs Mooney와 면담이 있고 난 후에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발각되어 큰일이 난 것처럼 Doran에게 알린다. 이처럼 그녀는 그것이 예측 못했던 사태인 것 처럼 위장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울며 죽어 버리겠다고 통속적인 연극까지 연출한다. 이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은 Doran이 불러간 후에 그녀가 금방 눈물을 거두고 지극히 평온한 표정을 돌아가는 데에서 확인된다. 곧 이어 그녀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그리느라고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잊어버리는데, 이같은 그녀의 이중성을 감안하면 그 내용이 반드시 Doran과의 생활에 대한 설계인지도 의심스럽다. 특히 Mrs Mooney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야 Doran과의 일을 기억해 냈다는 것은 이 같은 의심을 더욱 깊게 해 준다.

Doran은 자아분열적인 인물이다. 그는 상반된 원칙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더 젊어서는 진보주의에 관심을 가졌었고 아직도 그쪽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나 지금 그는 대체로 보수주의자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한때는 신의 존재를 부

정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시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아직 철저한 교인도 못되어서 일년이면 9할 정도 제대로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그는 하숙집의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Polly의 무식한 발투를 싫어 할 정도로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면서도 그녀와 정을 통하는 사람이다.

그는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인식할만한 지적 능력을 결여한 사람이다. 그는 속임수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막연히 느끼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녀의 음모에 걸려 들기에 안성맞춤인 사람이다. 그에게는 그간 Polly가 자기에게 해 온 행동을 좋아 해야 할지 경멸해야 할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가 행동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본능일 수 밖에 없다. Polly와 관계를 갖게 된 것도 본능을 따라서 한 것이었다. 그들의 사이가 표면화하게 되자 Polly가 그의 목을 끌어 안고 울 때에 자신의 젖가슴을 그에게 밀착시켜 그에게 육체적 자극을 가하는 것도 이런 면에서 함의하는 바가 많다. 첫째로 우리는 그의 취약점인 본능을 공격하여 그의 저항을 무력하게 하려는 Polly의 유혹녀 다운 면모를 거기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그가 어떻게 일을 수습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면서도 그녀의 젖가슴의 동요는 생생히 느끼고 있는 사실에서 우리는 사고의 기능은 마비된 그에게 오직 본능만이 살아 있음을 보기도 한다. 또 그의 마음 속에서 결혼을 거부하는 것을 Joyce는 “instinct”라고 반복해 말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뜻이 “본능”보다는 “직감”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그것 역시 이성적 사고를 결한 Doran의 정신상태를 지적해 주고 있다.

남녀의 문제에 대한 그의 행동의 기준이 본능이라면 대사회적인 행동의 기준은 그의 “명예감(sense of honour)”과 점잖음(respectability)이다. 그러나 그의 명예감이 진정한 명예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관례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감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체면에 지나지 않으며 그의 점잖음도 실은 추문에 대한 두려움의 다름 아니다. 더욱 큰 아이로니는 이것들은 바로 Mrs Mooney가 그에게 강압을 가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수단들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그녀는 스스로 점잖음을 가장하면서 “자기 딸의 명예손상(the loss of her daughter's honour)”을 보상하라고 요구한다. 또 그녀는 그를 “명예를 지키는 사람(a man of honour)”일 것이라고 선수를 쳐서 압력을 가하고 그것이 적중하여 그가 굴복해 버리고 만다. 즉 보통의 경우 위선과 허위의 희생자는 진실된 사람인데 이 경우에는 그 역시 위선과 허위를 뒤집어 쓴 인간인 것이다. 결국 이 단편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며, 똑 같은 허위가 가해의 수단도 되고 동시에 피해의 조건도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둘의 관계는 아귀가 잘 맞기 때문에 그들의 담판의 결과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없다. 작품 안에 그 장면이 생략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이 단편이 *Dubliners*가 포함하고 있는 단편들의 4개의 부류 중에서 미성년 부류의 마지막 단편이라는 점도 Doran에 관하여 여러가지를 시사한다. 그가 두개의 상반된 원칙 사이를 방황하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인간이라는 점이나 이성보다는 본능에 의해 행동하는 점등은 모두 미성년의 특징들이다. 또 아무 대책도 없이 일을 저질러 놓았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 조정 당하는 것도 어른답지 못한 행태이다. 그러나 그가 나이로는 삼십 사오세나 되는 어른이라는데에 문제가 있다. Mrs Mooney가 말하듯이 그는 나이 어린 것을 핑계로 삼을 수 없는, 세상물정을 꽤 알만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철없는 아이처럼 행동한 것이다. 이 아이로니를 한발 더 발전시키는 것은 그 나이에 이같은 미성년적인 정신상태는 발전 가능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발달의 속도가 늦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수 있는 미숙함이 아니라, 성장이 중단된 채 굳어 버린 정신적인 마비 현상인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이 세 인물들의 숨겨진 성격이 주로 함축과 아이로니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같은 기법은 개개의 인물에서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로도 구사되고 있다. 그 예로 먼저 종교를 들 수 있다. 이미 Mrs Mooney의 종교에 대한 태도는 살펴 본 바 있으나 이 문제는 Polly와 Doran과도 관련이 있다. Polly는 워낙 간단히 취급되어서 종교에 대한 그녀의 태도가 뚜렷이 나타나는 대목이 없다. 그러나 Doran의 방에 가서 침대에 엎드려 울면서 “O my God!”하고 신음하는 데에서 그것에 관한 약간의 암시를 얻을 수 있다. 이 장면은 그녀가 분명히 의식적으로 거짓을 연출하는 대목이다. 비록 그녀가 신음하듯 한 이말이 그것에다 종교적인 의미를 붙이기는 어려운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거짓의 순간에 신을 불렀다는 것은 그녀의 무딘 양심을 나타내 주기에 족하다. 또한 그러한 계제에 신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도 커다란 아이로니가 아닐 수 없다. 더우기 그 말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보다는 그녀 자신의 타락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했어야 옳았으므로 그 아이로니는 더욱 깊은 의미를 띠게 된다.

Doran도 종교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는 앞의 두 인물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는 평소에 별로 충실한 신자가 아니었다가 다급해지니까 종교에 의지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종교가 자신의 일을 대신해서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같은 그의 태도는 다음 장면에도 암시돼 있다.

He longed to ascend through the roof and fly away to another country where he would never hear again of his trouble, and yet a force pushed him downstairs step by step. (67-68)

Jackson Cope 등의 연구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영원한 고통을 받기 위해 층계를 내려가는 Doran의 모습은 *The Divine Comedy*의 Hell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sup>4)</sup> 그가 바라는 바는 단순히 먼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것이겠지만, Joyce는 그것에다 내려가고 상승하는 이미지를 주어서 종교적인 여운을 가미한다. 즉 내려가는 곳이 지옥이라면 위로 날아 올라가서 닿을 수 있는 걱정 없는 나라는 하늘나라일 것이다. Doran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으러 지옥으로 가면서, 기적 같은 구원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으로나 선행을 통해 그같은 구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에게 그같은 소망은 이승에서만 아니라 저승에서도 이루어질 가망이 없다는 데에 그 아이로니의 참 뜻이 있는 것이다.

교회는 이 세 인물에게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은 교회 그 자체가 이 작품에서 아이로니하게 그려지고 있다. 남녀를 결합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가 갖는 본래의 기능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교회를 대표하는 신부가 Mr Mooney와 Mrs Mooney를 갈라 놓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Doran이 고해하러 찾아 간 신부는 그가 당황할 정도로 Polly와의 관계를 시시콜콜 물어 본다. 그 신부는 신자의 영혼의 문제보다는 성적인 호기심에 더 마음이 팔려 있는 것이다. 이 신부도 *Dubliners*의 다른 단편들에 나오는 타락한 신부들과 같이, 아일랜드에서 가톨릭교회가 영적인 힘으로서 실패하

4) Jackson Cope, "An Epigraph for Dubliners," *JJQ* 7 (1970), 362-64. 그밖에 Mary T. Reynolds, *Joyce and Dante: The Shaping Imagination* (Princeton: Princeton UP, 1981) 등이 있음.



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점은 Mrs Mooney가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Doran을 텃에 걸리게 할 궁리를 하는 대목에서도 읽을 수 있다. 앞서는 그것을 교회에 대한 그녀의 불성실성과 도덕적 불감증의 증거로 보았으나, 이제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그것은 교회가 그녀를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데에 그만큼 무력했다는 반증이 된다.

이밖에도 Polly를 “perverted madonna”로 표현한 것도 교회에 대한 작가의 아이로니한 태도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Polly 같은 여자가 어떤 형태로건 성모에 비유된다는 것만도 가톨릭교회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녀와 Doran의 관계를 조금만 확대 해석하면 그 표현의 뜻이 좀 더 분명해 진다. Joyce가 아이랜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신적으로 마비된 무력한 사람들로 본 점을 상기하면 Doran은 대표적인 아이랜드의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커다란 질곡을 채우는 여자가 “madonna”를 닮았다면 그것은 가톨릭교회를 뜻한다고 해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점은 *A Portrait of the Arist as a Young Man*의 말미에서 Stephen Dedalus가 가족과 국가와 종교로부터의 해방을 외친 점을 상기하면 더욱 확실해 진다. Stephen은 물론 자기가 예술가로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중에서 종교의 속박은 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랜드 사람에게 가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Joyce가 여러 인물에게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은 맹목의 이미지리이다. Doran은 당황해 지면서 안경에 김이 서려 앞을 못 볼 지경이 된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찌 되려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개념이 없는 그에게 이같은 맹목의 이미지는 매우 적절한 것이다. 나머지 두 인물에게도 좀 다른 차원의 맹목의 이미지가 적용되고 있다. Mrs Mooney는 Doran을 꼼짝 못하게 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다음 체경 속의 자신을 본다. 거기서 그녀는 치사한 술책으로 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 한다. Polly도 Doran이 불러 내려간 후에 그의 방에 있는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 본다. 그러나 그녀 역시 그 속에서 자신의 진면목은 보지 못하고 태연히 머리에 핀을 다시 꽂을 뿐이다. 이 같은 맹목현상은 여기뿐 아니라 다른 단편들에도 자주 나온다. 예를 들면 “Clay”에서 Maria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서 생산도 못해보고 늙어 가는 비참한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만 생각한다. 또 “The Dead”에서도 Gabriel은 호텔방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에는 자기가 그렇게 속이 빈 우스꽝스런 인물인지를 알지 못한다.<sup>5)</sup> Joyce가 아이랜드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모습을 비춰 줄 거울로 *Dubliners*를 썼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들이 거울 속의 자신을 드러다 보면서도 자기의 참모습을 못 보는 것은 Joyce다운 복합적인 아이로니가 아닐 수 없다.<sup>6)</sup>

지금까지 우리는 “The Boarding House”에 구현된 Joyce의 기교를 간접적인 제시방법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보았다. 거기에서 우리는 Joyce가 작중 인물의 이중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좀 더 보편적으로 아이랜드인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을 보이기 위해서 주로 아이

5) 그러나 그는 Gretta의 고백을 들은 후에 자기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Gretta가 창피한 그의 모습을 거울에서 볼까봐 불빛을 가리는 점에서 다른 인물들과 다른 면이 있음.

6) “I seriously believe that you will retard the course of civilization in Ireland by preventing the Irish people from having one good look at themselves in my nicely polished looking-glass.” *Selected Letters*, 90.

로니를 쓰고 있다는 것과, 그 아이로니가 대단히 정교할 뿐만 아니라 자주 굴절을 하여 그 의미의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을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처음에 거론했던 이 작품과 자연주의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겠다. 자연주의라고 아이로니를 못 쓰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주의가 표방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작가의 개입이 배제된 객관적인 묘사라면, 그것은 우연한 상황적 아이로니나 극적 아이로니만을 용허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단편에서 본 것은 수 많은 언어적, 상황적 아이로니들이 의도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편에는 작가가 부재하는 것 같지만 실은 대단히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그가 아이로니를 하도 교묘하게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개입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면 이 단편도 기교적인 면에서 자연주의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비록 겉으로는 평이하게 보이지만 이 단편도 자세히 드러다 보면 역시 희대의 장인 Joyce의 솜씨가 분명한 작품이다.